

농촌관광 메카 '발돋움'

익산교육청 · 마을만들기협의회, 상호협력 업무 협약 체결

익산시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기고 활기찬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에 나선다. 시는 15일 익산교육지원청,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의 미래 일꾼들에게 양질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활기찬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시는 농촌관광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대와 유령에 맞는 콘텐츠와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최상의 실행방안들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익산교육지원청은 현장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익산 농촌체험프로그램 반영을 독려했다. 마을만들기협의회는 내실 있고 특색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바른 인성을 함양을 위한 양질의 체험교육을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들 모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익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연계지

원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공감여행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제공을 폭넓게 함은 물론 숙박비·식비·체험비 등 비용을 절감할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지역교육공동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육과정 다양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인성함양 및 창의적 사고의 증진과 활력 있는 농촌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도적인 교육의 장을 열어 가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활근로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익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자활센터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검정고시 강의 등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강의 및 교재 제공과 더불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돌봄사회서비스사업, 자선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한다.

임탁균 센터장은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자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과 협동하는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4세 이하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63-852-1388)는 청소년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전화 1388'은 국번 없이 1388, 휴대전화 사용시 지역번호 +1388로 전화하면 된다.

/익산=이득훈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신흥도시숲 야간 경관 조성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는 전북도 공모사업을 통해 근대마을과 월명산전망대 등을 연결하는 신흥도시숲 공원 일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신흥도시숲 공원 일부에 수목부사등, 스탠등, 달 조형물 조형 등을 설치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경관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불빛거리 큰 호응을 얻으며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에도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사업은 경사지와 계단식 지형 등 다양한 공간구조를 이용한 체험형 야간경관조명 사업이었다면, 2차사업은 옛 달동네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대규모 용역에 신흥도시숲과 달동네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분쟁 해소 나서

군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서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면적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임피면 읍내리 일원의 임피읍내 지구(1.648필지)와 어청도리 일원의 어청도지구(357필지)에 대한 지적불합치를 빠르게 정리해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지적도가 100여년 전 실제 감점기 종이에 작성·등록해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올해 전액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3년 연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합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불합치 해소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

군산시보건소, 역학조사반 12개팀 · 시청 200여명 추가 편성 운영

군산시보건소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보건인력의 과부하 방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역학조사반 12팀에 시청 200여명을 추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보건소 역학조사팀을 중심으로 확진자 기초조사 업무를 일원화하고 역학조사 단계를 간소화했으며,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된 역학조사서를 활용했다.

또한, 방역대응 전략 전환에 따라 시민참여형 자기가입식 전자역학조사서 시스템을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 및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 격리기간, 자기격리 통보 방식도 변경됐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확진자와 동거하는 사람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동거인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로 분류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격리 기간은 최초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에 맞춰 7일로 적용되며 자기격리통보 또한 최초 확진자에게 일괄 통보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에 힘쓰겠으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군산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시 100만원 지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다이로울 정책 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16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이용인원 제한 조치) 대상 사업장으로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익산시에서 재창업한 사업주 또는 재창업 예정자 등이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분사 직영 체제 브랜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2주간 익산종합운동장 서문 소상공인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지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용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

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량(70개소)을 초과해 접수되는 경우에는 3억 이하 영세소상공인이나 매출 감소 비율이 큰 사업장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영업 재개 성공을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농촌 비즈니스 모델 '파티플래너' 양성

익산시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는 농업·농촌 마케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농촌 비즈니스 모델인 파티플래너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15일 여산면 수은마을에서 파티플래너 1급 자격증과정 2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개강식을 가졌다.

최근 파티이벤트 산업과 전문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4월 파티플래너 1기를 진행해 28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일터가 되면서 교육 문의가 쇄도해 공개 모집을 통해 2기 수강신청

을 받았다. 파티플래너 양성 이론교육으로 판과티 이해, 기획서 작성법과 푸드스타일링, 공간스타일링 등 상품 전시를 위한 실무교육도 병행하여 4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 교육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활력대학(농촌관광분야)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총 14회 56시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파티플래너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내실화를 다졌다. /익산=이득훈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